

# 화순군, 관광·문화기반 청년유입 예산안 마련

## 1137억 증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등

화순군이 관광·문화 기반 조성과 청년 유입에 중점을 두고 기정예산보다 1137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2023년 본예산도 7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 1회 추경도 역대 추경 중 최대규모여서 화순군의 전체 예산은 864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해 총

예산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1137억원(15.2%)이 증가한 것.

일반회계 주요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504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22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086억원(16.9%)이 증가한 7499억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0억원(4.6%)이 증가한 1143억원이다. 총예산은 8643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1137억원

(15.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40억원,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3억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95억원, 화순 흥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원, 다지리 축구장 개보수 사업 8억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7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원,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27억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20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3억원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115억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에 24억원, 향정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원 등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38억원도 포함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새로운 화순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및 관광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화순군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개최하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 노란 똑방마켓 정식 개장 곡성군, 농수산물공품 판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1일부터 '곡성 똑방마켓'을 개장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131회를 맞이하는 곡성 똑방마켓은 2016년 주민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전남의 대표적인 플라마켓이다.

방문객들은 영운천과 곡성천으로 둘러싸인 똑방마켓에서 빛나무를 그늘 삼아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 농수산물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마켓이 열리는 약 300m 똑방 거리에는 매회 평균 60팀 이상의 셀러가 참여해 활발히 운영된다. 창작자들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 소품, 농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 직접 재배한 건강한 지역농산물이 인기가 높다.

'올해도 똑방마켓으로 경중경중 소풍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상반기 토끼띠방 문객 웰컴, 버스킹대회, 가족운동회, 물과 함께, 님과 함께 등 행사가 추진된다. 하반기 추억으로 똑방, With 똑방으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똑방마켓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천변(읍내리 832-29)에서 열린다.

곡성=김대명 기자

## 대학 신입생 진학 축하금 지원 영광군, 1인당 50만원

영광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2023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축하금은 교육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대학 신입생으로 1월 1일 기준 본인이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4일까지며 군 인구교육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대학 진학 축하 지원금은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영광사랑카드에 적립해 지급할 예정이며 축하금은 1인 1회만 지원한다.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군 인구교육정책과 교육팀(061-350-4704)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청소년 PQ 과정 수강생 모집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상철 이사장)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청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PQ 학습코치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PQ는 프로젝트 능력이란 뜻으로 목표와 일정이 있는 일을 추진하는 능력(사고, 학습, 소통, 관리)을 말한다.

오는 25일부터 7주에 걸쳐 진행되는 PQ 학습코치 양성과정은 곡성군이 지자체 최초로 지도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군민들의 독서교육체제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해 총 7회 동안 운영된다. 과정 종료 후 시험을 통해 마인드 프로세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향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사교력 증진 독서교육(원북원맵)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교육활동가로 키울 계획이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청년과 학부모들의 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명 기자



## 함평군,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함평군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11개 소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다.

함평군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11개 소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다. 함평군 제공

## 장성 고문헌 '절효공실기' 국문 번역판 나왔다

장성지역의 유교적 향촌윤리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문헌 '절효공실기(節孝公實記)'가 국문으로 번역됐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은 고려시대 장성의 상례·제례 문화 등이 수록된 '절효공실기'를 번역·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절효공실기'는 고려시대 문인 서릉의 가정교육 편집물인 '거가십훈(居家十訓)'을 비롯해 행적을 수록한 역사서·지리서, 후손·후학과 관련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책 이름은 서릉의 시호 절효(節孝)에서 따왔다. 서릉이 지은 '거가십훈'은 이 책의 핵심으로 유교적 상제례의 절차와 의의, 주자가례의 이념을 고려 향촌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등을 담고 있어 유교적 향촌윤리의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간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원저자인 서릉은 장성 출신으로 고려 무신정권기에 벼슬을 하지 않고 부모 봉양, 학문 수련, 가정교육, 지역사회 교화에 삶을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공공도서관 요청으로 이뤄진 번역에 김경호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김태완 특별연구원이 번역, 이형성 학술연구교수가 감수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곡성군, 곡성 5미 활용 밀키트 공개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곡성군은 캠핑객을 겨냥해 지역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연회에는 지역 음식점 9개 업체가 참여해 레시피와 관련한 조리과정을 제공

했다.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정에 호평을 받았다.

곡성개비정식, 참깨 매운탕,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토란들깨탕, 능이 닭곰탕, 떡볶이, 떡갈비, 갈비탕, 해물 철판구이, 다슬기수제비, 해장국까지 11가지 음식이 소개됐다.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화하고 오

는 4월부터 하루 전 주문하면 캠핑 당일 배달을 통해 신선한 밀키트를 지역캠핑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의 우리동네 밀키트 종류, 주문 방법 등 정보는 지역캠핑장, 관광안내소에 홍보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곡성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tou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대명 기자

## 4월 화순 고인돌 축제 개막 준비 총력

오는 4월 21~30일 고인돌 유적지 전역(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에서 열리는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세계문화유산고인돌의 역사적 가치를 뜻들과 함께 재조명, 전남을 넘어 전국 대표축

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장소를 남산 공원에서 고인돌 유적지로 옮겨 개최한다.

봄꽃 대명사인 유채꽃을 중심으로 크리산세뭉, 수선화, 톨립, 야생화 등을 고인돌 유적지 곳곳에 식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초화 19만주 등으로 제작한 조형물 24

종 113점이 이색정원존, 화순명품존, 청동기화순국보존 등 3개 테마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전시, 체험, 판매 등 4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식 행사 중 하나인 개막식은 4월 21일 오후 6시 화순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4월 29일 세계계석테마파크에서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유적지를 홍보하고 EDM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 산불예방 진화대원 65명 교육 곡성군, 산불 특별대책 기간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진화대원 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적절한 대처 방법과 시기,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와 도구의 사용법, 산불 예방과 진화와 관련된 법령 등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체험하며 학습하는 현장실습도 진행됐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곡성=김대명 기자

## 노령층 골밀도 검사 연중 시행 담양군, 의료서비스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해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골다공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골밀도 검사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비용은 만 65세 이상 여성과 만 7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에 한해 1100원이며 그 외 주민들은 3만477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검사는 민원실 접수 후 의사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검진결과에 따라 처방전 발급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및 관리 방법 안내,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업을 통해 향촌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